



# 3000원 구내식당에 뷰티샵·카페, 자체 병원까지 직원을 내 몸같이, '바프' 성장비결

(바디프랜드)

## 체험기 바디프랜드 본사

회사 공간 곳곳에 예술품 가득  
구성원 10명 중 1명, 직원 위한 직원  
5월 매출 656억... 창사 이후 최대

‘구성원 10명 중 1명은 직원을 위한 직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에 들어서면 화려한 예술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들 예술품은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예술품을 자주보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기사를 읽고 들여놓은 것들이다.

바디프랜드 본사 1층 오른쪽에 있는 외부인과 직원들을 위한 카페도 마찬가지. 사내 카페에 있는 예술품과 오락 시설들이 여느 회사와 달리 활기찬 기운을 선사한다.

회사 공간 곳곳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이들 예술품은 큐레이터 출신 직원들이 모인 아티팀이 직접 기획해 설치한 것들이다. 아티팀은 작가와 협업해 작품을 대여 후 본사에 전시한다. 추후 판매로도 이어진다.

지하 1층에는 직원을 위한 사내 카페와 미용실, 네일샵, 헬스장, 꽃집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사용요금도 눈에 띈다. 카페와 사내 식당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바디프랜드의 한 직원은 “강남 일대에서 3000원으로 어떻게 식사 해결을 하겠느냐. 품질도 정말 좋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1층 사내 카페 모습. /백지연 기자



‘바디프랜드’에서 운영하는 사내 의원 모습. /백지연 기자

&D센터에서 근무하는 8명의 의사가 진료를 맡는다.

정 팀장은 “보험 적용 진료는 사실 외부 병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비보험 영역은 (외부 병원에 비해)정말 차이가 크게 난다”며 “치과의 인기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콜센터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전임 대표의 관심이 많았다. 사내 복지시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고객 응대도 더 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향후 더 많은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복지에 대한 성과를 문자관계자는 “성과를 지표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매출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5월 당시 월 기준으로 656억의 매출을 기록, 창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에도 440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10% 실적이 늘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호서대가 7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2020 호서발전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실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호서대

## 호서대, ‘2020 호서발전연구회’ 출범

호서대는 ‘2020 호서발전연구회’ 출범식을 7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개최하고 실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총장 직속으로 대학 내 구성원들의 개선요구 사항 또는 대학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받아,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대학발전의 핵심 키워드인 ▲AI ▲4차 산업혁명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대학발전을

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호서발전연구회 위원장을 맡은 정상희 부총장은 “호서발전연구회는 대학 내 상시운영 연구회로 국책사업, 발전계획 및 대학평가 등 우리 대학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왔다”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교수와 직원이 하나돼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hnj@

## 대교협

### 대입 정보 박람회 취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1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교협이 매년 여름방학 시기 수험생들에게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박람회는 올해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올해 149개 대학의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대교협은 방역 당국 등과 협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 등교 개학 연기로 박람회 기간 기말고사를 치르는 고교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현실도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 첫 모평 난이도 ‘대체로 평이’

##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작년 수능 비해 국어, 수험나형 쉽고  
수학가형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한 출제기관의 첫 모의평가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 수업이 파행 운영됐지만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영역은 139점, 수학가형은 143점, 수험나형은 140점이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와 수험나형은 각각 1점, 9점 하락했으나, 수학가형은 9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험나형은 쉽게, 수학가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의미다. 다만, 수험나형은 지난해 수능에서 매우 어렵게 출제된만큼 이번 시험에선 적정 난이도로 출제됐고, 최근 수능에서 쉽게 출제돼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수학가형도 적정 난이도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국어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이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131점)보다 1점 올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1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은 4.41%로 지난해 수능(4.82%)보다는 소폭 축소됐으나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0.3%로 작년 수능(0.2%)보다 확대됐다.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1등급 커트라인은 132점으로 4점 상승했다.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5.01%로 작년 수능(5.63%)보다 줄었고, 만점자 비율(0.2%)도 0.4%포인트 축소됐다.

수험 나형은 135점까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커트라인은 작년 수능과 같았으나 1등급 학생 비율은 4.54%로 작년(5.02%)보다 축소됐다. 만점자 비율은 0.2%에서 1.2%로 많아졌다.

절대평가 전환 4년차를 맞는 영어 영역의 경우 상·하위권 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비율은 8.73%(3만 4472명)로 작년 수능(7.43%)보다 많아졌지만, 2~4등급(44.8%)이 크게 줄고, 6등급이하(33.93%)는 증가했다.

사회탐구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1~7점 높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2점)가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67점)이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도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모두 1~8점 상승했다. 화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85점)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68점)은 가장 낮았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결과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용수 기자 hys@

## 건국대 김성민 교수, 한국철학회 회장 선출

건국대는 김성민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열린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2대 차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이다.

한국철학회는 1953년에 설립됐으며, 500명 이상의 정기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철학 분야의 국내 최대



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규모 학술단체이다. 김성민 교수는 학생복지처장, 문과대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직원연구회 인문학연구회장 및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 동국대-도로교통공, 교통 신기술 개발 맞손

### 공동 연구개발·학술행사 등 협력

동국대와 도로교통공단이 8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연구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와 도로교통공단은 상호 간 연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연구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통부문 신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등 다학제적 노력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자율주행차 및 교통빅데이터 부문의 신기술 개발과 법제 개선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



(왼쪽) 윤성이 동국대 총장, (오른쪽)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동국대

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과 학술행사 개최, 연구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